

청소년 지위비행의 위험군 탐색에 관한 연구

박영미^{1,*} · 이해경² · 백수연^{3,†}

¹당진간호학원, 원장

²국립공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³국립공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022년 11월 15일 접수: 2022년 12월 24일 수정: 2022년 12월 26일 채택)

Identifying High Risk Group of Adolescent Status Delinquency and Factors Associated with the Group

Young Mi Park^{1,*} · Hye-Kyung Lee² · Suyon Baek^{3,†}

¹Dangjin Nursing Academy, Director

²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Associate Professor

³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Received November 15, 2022; Revised December 24, 2022; Accepted December 26, 2022)

요 약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7차년도 자료인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지위비행의 고위험군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1,979명 중 지위비행 집단은 264명으로 전체의 13.3%로 나타났다. 청소년 지위비행의 고위험군은 남자이면서 긍정적 양육방식을 낮게 인식하는 군이었다. 긍정적 양육방식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성별, 정서문제, 교사관계, 성취가치 순이었다. 청소년 지위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남자 청소년에게 특화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공격성에 초점을 두었던 그 동안의 중재에서 더 나아가,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정서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중재가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에게 중요한 학교환경에서 교사관계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바, 청소년 지위비행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교육, 상담기법에 대한 훈련을 통한 교사와의 관계 증진이 청소년 지위비행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 지위비행, 의사결정나무분석,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Corresponding author

(E-mail: whitesy@kongju.ac.kr)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high-risk groups of adolescent status delinquency(ASD) and to identify related factor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1,979 adolescents enrolled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data from the 7th year of the 4th grade panel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analysis method was used. The ASD group was 264, which was 13.3% of the total. The high-risk group for ASD is that is male who has a low perception of positive parenting style. Positive parenting style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influencing factor in ASD, followed by gender, emotional problems,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achievement value. In order to prevent AS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arenting education program and an intervention program specialized for male adolescents. In addition, interventions that comprehensively deal with emotion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re required, going beyond the previous interventions that focused on aggression. In particular, it has been found that relationship with teachers is the most important influencing factor in the school environment. Through education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SD and training on counseling techniques, the promotion of relationships with teachers will act as a protective factor to prevent ASD.

Keywords : Adolescent status delinquency;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analysi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과도기로, 신체적·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불안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흡연, 음주, 가출,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1].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중·고등학교 학생은 15.0%,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술을 마신 중·고등학교 학생은 6.7%이었고[2], 2019년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최근 1년 내 가출 경험률은 3.5%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교 학생의 무단결석률은 1.4%로 나타났다[3].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 비행 및 청소년 범죄로 표현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형태인 강도, 절도, 살인, 성범죄 등을 청소년 비행으로 보았다면, 최근에는 성인에게는 문제행동이 아니지만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인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등과 같은 행위를 지위비행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4].

이러한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흡연과 음주 같은 지위비행을 시작으로 다른 유형의 청소년 비행에 노출되고 있고[5],

이는 점차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6]. 즉, 흡연과 음주는 비행친구와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 반복적인 음주는 교통사고 및 폭력 범죄 등을 유발하는 자기 통제력 상실의 원인이 된다[6]. 또한 청소년기의 가출은 기본교육의 중단으로 이어져 평범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하고, 취업능력 상실로 인해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7]. 또한 무단결석의 만성화는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여러 사회문제 즉, 약물남용, 범죄조직 활동, 심각한 행동장애 등에 주요 위험요소가 된다. 그렇기에 청소년 지위비행의 예방을 위해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이 높을수록[8],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9], 부모에게 학대 및 과잉간섭을 받을수록[10],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간이 부족할수록[11], 교사애착이 낮을수록[12], 또래애착이 높을수록[13], 비행행동이 증가하였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지위비행의 가능성이 감소되었다[14].

이와 같이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 개인에 국한된 요인, 부모관련 요인을 포함한 가족요인,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를 포함한 학교적응요인과 지위비행과의 단편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복잡하면서 다양하다. 즉, 각각의 요인들이 서로의 상호작용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유의미한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지위비행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방법(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을 활용하고자 한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은 대용량의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숨겨진 지식, 예상치 않았던 관계 및 패턴, 새로운 규칙 등을 탐색하고 추출하여 모형화 할 수 있다. 특히, 변수들간의 수많은 상호작용들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없이 자동적인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청소년 지위비행의 고위험군 도출 및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특성들에 대한 적합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이하 KCYPS 2010)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분석법을 통해 청소년 지위비행의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낮추기 위한 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KCYPS 2010의 자료 중 초4 패널의 7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소년 지위비행의 위험군을 도출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 지위비행의 위험군을 탐색하기 위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 2010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KCYPS 2010의 표본은 2010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7차년도 자료인(2016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 1,979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지위비행

KCYPS 2010 자료에서 ‘지난 1년 동안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의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를 지위비행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2.3.2. 개인내적 요인

2.3.2.1. 정서문제

정서문제는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의 합을 의미하며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은 조봉환과 임경희[16]가 개발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의 중복문항을 제외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주의집중 7문항, 공격성 6문항, 신체증상 8문항이었다.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와 김경연[17]이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척도 5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우울은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8]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 13문항 중 3문항을 제외·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문제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2.3.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 & Kreman[19]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 심혜원[20]이 번역한 뒤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2.3.2.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공인규[21]의 Holland 진로탐색 프로그램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문

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0 이었다.

2.3.2.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과 백혜정[22]이 개발한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3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1 이었다.

2.3.2.5. 성취가치

성취가치는 양명희[23]의 자기조절 학습능력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에서 4개 하위요인 중 성취가치만 포함하였다. 총 7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9 이었다.

2.3.2.6. 주관적 성적 평가

주관적 성적 평가는 '학생의 지난 학기(2016년 1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측정되었다.

2.3.3. 발달환경적 요인

2.3.3.1. 긍정적 양육방식

긍정적 양육방식은 허묘연[24]이 개발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를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감독 3문항, 애정 4문항, 합리적 설명 3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방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7 이었다.

2.3.3.2. 부정적 양육방식

부정적 양육방식은 허묘연[24]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를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은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비밀관성 3문항, 과잉기대 4문항, 과잉간섭 4문항,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방식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7 이었다.

2.3.3.3. 방임

방임은 허묘연[24], 김세원[25]의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71 이었다.

2.3.3.4. 학대

학대는 허묘연[24], 김세원[25]의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4 이었다.

2.3.3.5.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26]가 제작한 또래애착 척도를 재구성한 것으로,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 소외 3문항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의사소통과 신뢰 문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59 이었다.

2.3.3.6. 교사관계

교사관계는 민병수[27]가 제작한 초·중·고등학교 생활적응 척도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 처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1 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면제(KNU_IRB_2020-73)를 받은 후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 2010은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승인통계: 제402002호)로 대상 학교에 협조 공문 발송 및 학교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사대상 청소년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된 자료이며, 식별 정보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정보는 삭제되었다.

2.5.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지위비행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2) 지위비행 집단과 비지위비행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내적 특성, 발달환경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χ^2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3) 지위비행의 위험군을 도출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이용하였다. 분리기준은 지니 지수(Gini Index)를 이용하였으며, 불순도 향상 기준값은 0.0001,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정지규칙은 최대 나무 깊이(maximum tree depth)를 4수준으로,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최소 사례 수는 각각 100례와 10례로 설정하였다. 의사결정나무의 정확도는 10-fold 교차검증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위비행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036명(52.3%), 여자 943명(47.7%)이었으며, 학교지역은 수도권 외 지역 1,347명(68.1%), 수도권 617명(31.2%), 해외 1명(0.1%), 무응답 14명(0.7%) 이었고,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 고등학교 1,435명(72.5%), 자율형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168명(8.5%), 특성화고등학교 354명(17.9%), 기타 6명(0.3%), 무응답 16명(0.8%)이었다. 보호자의 근로여부는 맞벌이 1,108명(56%), 부모 혹은 보호자 중 한 명만 근로 714명(36.1%), 둘 다 직업 없음이 30명(1.5%), 무응답 127명(6.4%)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가 생각하는 가족의 경제수준은 잘 사는 편 566명(28.6%), 보통 1,155명

(58.4%), 못 사는 편 258명(13%)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은 양부모 가정 1,685명(85.1%), 한부모 가정 혹은 조손가정 167명(8.4%), 무응답 127명(6.4%)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대상자 1,979명 중 지위비행 집단 264명으로 전체의 13.3%이었으며, 비지위비행 집단은 1,715명으로 전체의 86.7%이었다 (Table 1).

3.2. 지위비행 집단과 비지위비행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내적 특성, 발달환경적 특성의 차이

지위비행 집단과 비지위비행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chi^2=54.55$, $p<.001$), 고등학교유형($\chi^2=24.81$, $p<.001$), 가족의 경제 수준($\chi^2=18.95$,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위비행 집단과 비지위비행 집단 간 개인내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정서문제($t=4.26$, $p<.001$), 진로정체감($t=-2.04$, $p<.001$), 주관적 성적 평가($\chi^2=32.49$, $p<.001$), 성취가치($t=-5.82$,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위비행 집단과 비지위비행 집단 간 발달환경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긍정적 양육방식($t=-5.21$, $p<.001$), 부정적 양육방식($t=2.88$, $p=.004$), 부모의 방임($t=3.62$, $p<.001$), 부모의 학대($t=2.99$, $p=.003$), 교사관계($t=-2.49$, $p=.013$)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3.3. 의사결정나무분석에 따른 지위비행의 위험군 도출과 관련 요인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시행한 결과, 청소년 지위비행 위험군의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첫번째 지위비행 위험군은 성별이 남자이면서 긍정적 양육방식을 낮게 인식하는 군이었다(노드 5). 이에 속한 청소년의 48.8%가 지위비행 청소년이었고, 이는 전체 청소년의 지위비행 비율인 13.3%보다 3.66배 높았다. 두번째 지위비행 위험군은 여자이면서 정서문제와 성취가치를 낮게 인식하는 군이었다(노드 7). 이에 속한 청소년의 36.4%가 지위비행 청소년이었고, 이는 전체 청소년의 지위비행 비율보다 2.73배 높은 수치이다. 세번째 지위비행 위험군은 여자이면서 정서문제는 낮게 경험하나 성취가치는 높고 교사관계를 낮게 인식하는 군이었다(노드 11). 이에 속한 청소년의 30%가 지위비행 청소년이었고, 이는 전체 청소년의 지위비행 비율보다 2.25배 높았다. 네번째 지위비행 위험군은 남자이면서 정서문제는 높고 긍정적 양육방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SD (N=1,97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036	52.3
	Female	943	47.7
Area of school	Metropolitan area	617	31.2
	Non-metropolitan area	1,347	68.1
	Overseas	1	0.1
	no response	14	0.7
Type of school	General	1,435	72.5
	Private+Special-purpose	168	8.5
	Specialized	354	17.9
	Etc.	6	0.3
	no response	16	0.8
Working status of caregivers	Dual-income	1,108	56.0
	Single-income	714	36.1
	Inoccupation	30	1.5
	no response	127	6.4
Economic level of family	Above average	566	28.6
	Average	1,155	58.4
	Below average	258	13.0
Structure of family	Two-parent	1,685	85.1
	Single-parent, Grandparents	167	8.4
	no response	127	6.4
	Non-ASD	1715	86.7
	ASD	264	13.3

에 대한 인식이 2.21점 보다 높고 3.26점보다 낮은 군이었다(노드 15). 이에 속한 청소년의 25.6%가 지위비행 청소년이었고, 이는 전체 청소년의 지위비행 비율보다 1.92배 높았다. 다섯번째 지위비행 위험군은 남자이면서 긍정적 양육방식은 높고 정서문제는 낮았으나 교사관계를 낮게 인식하는 군이었다(노드 13). 이에 속한 청소년은 24.2%가 지위비행 청소년이었고, 전체 청소년의 지위비행 비율에 비해 1.82배 높았다. 여섯번째

지위비행 위험군은 성별이 여자이고 정서문제가 높은 군이었다(노드 4). 이에 속한 청소년의 19.8%가 지위비행 청소년이고, 이는 전체 청소년의 지위비행 비율에 비해 1.48배 높았다. 청소년 지위비행에 있어 긍정적 양육방식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성별, 정서문제, 교사관계, 성취가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s in demographic, intrapersonal, and developmental-environmental variables between the ASD group and the non-ASD group

(N=1,979)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ASD	non-ASD	χ^2	<i>p</i>
		(n=264)	(n=1715)		
		M±SD or n(%)			
Demographic	Gender	n=264	n=1715	54.55***	<.001
	Male	194(73.5)	842(49.1)		
	Female	70(26.5)	873(50.9)		
	Area of school	n=254	n=1711	0.18	.914
	Metropolitan area	81(31.9)	536(31.3)		
	Non-metropolitan area	173(68.1)	1174(68.6)		
	Overseas	0(0.0)	1(0.1)		
	Type of school	n=253	n=1710	24.81***	<.001
	General	161(63.6)	1274(74.5)		
	Private+Special-purpose	20(7.9)	148(8.7)		
	Specialized	69(27.3)	285(16.7)		
	Etc.	3(1.2)	3(0.2)		
	Working status of caregivers	n=247	n=1605	3.83	.147
	Dual-income	135(54.7)	973(60.6)		
	Single-income	106(42.9)	608(37.9)		
Inoccupation	6(2.4)	24(1.5)			
Economic level of family	n=264	n=1715	18.95***	<.001	
Above average	75(28.4)	491(28.6)			
Average	133(50.4)	1022(59.6)			
Below average	56(21.2)	202(11.8)			
Structure of family	n=247	n=1605	3.40	.065	
Two-parent	217(87.9)	1468(91.5)			
Single-parent, Grandparents	30(12.1)	137(8.5)			
Intrapersonal	Emotional Problems	2.05±0.44	1.92±0.44	4.26***	<.001
	Ego-resilience	2.92±0.41	2.90±0.42	0.45	.653
	Career-identity	2.89±0.64	2.97±0.61	-2.04*	.042
	Life satisfaction	2.95±0.61	2.97±0.59	-0.68	.500
	Achievement goal	2.87±0.61	3.09±0.55	-5.82***	<.001
	Subjective grade evaluation	n=254	n=1711	32.49***	<.001
	Above average	77(30.3)	636(37.2)		
	Average	70(27.6)	645(37.7)		
Below average	107(42.1)	430(25.1)			
Developmental- Environmental	Positive parenting style	2.94±0.50	3.10±0.47	-5.21***	<.001
	Negative parenting style	2.26±0.54	2.15±0.55	2.88**	.004
	Neglect	1.90±0.53	1.78±0.50	3.62***	<.001
	Abuse	1.69±0.62	1.57±0.56	2.99**	.003
	Peer attachment	3.12±0.45	3.16±0.44	-1.18	.237
	Relationship with teacher	2.94±0.61	3.04±0.55	-2.49*	.013

p*<.05, *p*<.01, ****p*<.001

Table 3. Characteristics of ASD risk groups

Subgroup	Prediction of ASD risk(%)	n	Characteristics	Index(%)
node 5	48.8	20	Male Positive parenting ≤ 2.21	365.7
node 7	36.4	4	Female Emotional problems ≤ 2.57 Achievement goal ≤ 1.64	272.6
node 11	30.0	3	Female Emotional problems ≤ 2.57 Achievement goal > 1.64 Relationship with teacher ≤ 1.7	224.9
node 15	25.6	95	Male Positive parenting > 2.21 Emotional problems > 1.99 Positive parenting ≤ 3.26	192.0
node 13	24.2	23	Male Positive parenting > 2.21 Emotional problems ≤ 1.99 Relationship with teacher ≤ 2.70	181.5
node 4	19.8	16	Female Emotional problems > 2.57	148.1

3.4. 고찰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의사결정나무분석의 방법으로 청소년 지위비행 위험군을 도출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위비행은 전체 1,979명중에 264명으로 나타나, 이는 전체의 13.3%에 해당되었다.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의하면, 2019년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14.2%, 여자 고등학생이 5.2%이었고, 중학생은 남자 4.0%, 여자 2.3%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남녀 모두 상급학년일수록 흡연율이 높았다. 또한 남자 고등학생의 음주율은 25.0%, 여자 고등학생은 18.4%이었으며, 중학생 남자 8.0%, 여자 7.1%에 비해 높았다.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남녀 학생 모두 상급학년일수록 음주율도 증가하였다 [2]. 아동중합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1년 동안 무단결석 경험에 대한 응답이 만9-11세에서 0.3%, 만12-17세에서 1.4%이었다[28]. 또한 2019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만9세

-17세 이하 청소년의 최근 1년 내 가출 경험률은 3.5%로 나타났다[29]. 이렇듯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지위비행으로 선정한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은 여러 실태조사를 통해서 청소년의 주요 문제행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지위비행은 청소년기라는 과도기적 시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행동상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성장·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위비행이 지속되면 성인이 된 이후에 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30]. 그러므로 청소년 지위비행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위비행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나무분석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청소년 지위비행 고위험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양육방식, 성별, 정서문제, 교사관계, 성취가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고위험군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위비행 고위험군 집단의 특성은 성별이 남자이면서 긍정적 양육방식을 낮게 인식한 청소년이었고, 이 집단에 해당되는 청소년 중 48.8%가 지위비행 청소년이었다. 즉, 청소년이 인식하는 긍정적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며,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다. 동일한 연구 설계로 청소년 지위비행의 영향요인을 확인한 선행논문이 없어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긍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 지위비행의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31]. 이러한 양육방식의 영향력이 확인됨에 따라 고위험 비행청소년에게 가족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자기통제력을 향상시켜 재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도 있었다. 이 가족프로그램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고맙습니다(Thank), 미안합니다(Sorry), 사랑합니다(Love)’를 사용하여 가족의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위험 비행청소년은 프로그램 종료 후 부모에 대한 적대감, 오해가 감소하였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부모에게 긍정적인 지지를 받아 자기통제력이 증가하였다. 즉,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되고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청소년의 재비행의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32]. 이렇듯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 부모의 직접 참여 및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대한 예방적인 개입과 동시에 문제행동 변화의 치료적 개입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33]. 따라서 자녀의 긍정적인 자원으로서의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학습하여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요구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위비행 예방이라는 중재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지위비행 집단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2.78배 더 많았다. 이는 유교 문화권의 영향으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사회에 순응하는 규범적 태도를 강요받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의 지위비행이 잘 통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4]. 본 연구에서 지위비행의 고위험군이 남자 청소년으로 확인된 만큼, 남

자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지위비행 고위험군의 특성은 남자이면서 긍정적 양육방식은 중간 정도로 인식하지만 정서문제를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이었으며, 이 중 정서문제는 여자 청소년의 지위비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지위비행의 위험요인으로 주의집중[35], 공격성[36], 사회적 위축[37]의 영향력을 확인한 바 있고, 특히 우울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음주 혹은 무단결석을 강화시키는 변수로 확인되었다[38]. 이렇듯 선행연구에서도 공격성과 우울과 같은 청소년의 정서문제는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하면 청소년 지위비행의 시발점이 되고 있었으며, 이는 청소년 지위비행에 정서문제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청소년기는 정서적인 동요가 심해 반사회적인 형태로 갈등과 증오, 흥분 등을 표출하기도 하며 스트레스 관리에 미숙하다[39]. 또한 강한 감정의 충동이 파괴적인 성향을 발전시켜 청소년 범죄로 연결되기도 한다[40].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에 주목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조절 능력이 저하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할놀이를 활용한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정서조절 능력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 청소년의 공격성과 비행행동이 감소되었다[41]. 청소년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성인기를 준비하는 발달적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걱정과 불안이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지위비행의 예방을 위해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혹은 비교과활동의 확대, 정서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심리 치료 및 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42].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성에 초점을 둔 그 동안의 중재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서문제의 요소인 주의집중,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의 정서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추후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지위비행 고위험군의 특성은 남자이면서 긍정적 양육방식을 높게 인식하고 정서문제는 낮게 경험하고 있지만 교사관계를 낮게 인식하는 청소년이었다. 본 연구의 여자 청소년에서도 정서문제는 낮고 성취가치는 높지만 교사관계를 낮게 인식한 집단에서 지위비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바, 교사관계는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

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청소년 지위비행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 및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낙인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며 [43], 청소년과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켜 무단결석, 일탈행동 등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한다[44]. 반면에 교사와 청소년의 긍정적 유대관계는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매개변인으로 교사애착이 작용하면 비행의 심각성 및 부정적 사고와 관계없이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청소년 비행은 교사관계와 부적상관을 보여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초기 비행수준이 높아진다[45]. 즉, 교사애착 및 교사의 지지는 지위비행 청소년의 부적응이나 행동문제를 줄이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에게 교사는 청소년기 발달에 부모 다음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로 사회화 과정에서의 대리인이기도 하고 강력한 모델이 되기도 한다[46]. 교사는 청소년의 부정적인 행동과 그에 대한 대처과정에서의 심리적인 보호를 통해 청소년의 비행행위를 예방한다[47]. 반면 교사관계가 원만할수록 청소년의 비행 수준은 감소되었으나 비행의 변화율은 교사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새 학년이 되면서 담임교사가 바뀌고, 그에 따른 교사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도 바뀌게 되어 청소년의 비행 변화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 연구도 있다[45]. 따라서 효과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개입하기 위해 청소년과 교사의 관계 증진이 중요한 과제이며 청소년 비행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사관계의 영향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위비행 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선입견,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청소년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교사와의 주기적인 상담은 청소년 지위비행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위비행 고위험군의 특성은 여자이면서 정서문제는 낮게 인식하지만 성취가치가 낮은 집단이었다. 이 집단에 해당되는 청소년 중 36.4%가 지위비행 청소년으로, 이는 전체 청소년 중 13.3%가 지위비행 청소년이었던 것에 비해 2.73배 더 많은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의 성취가치는 학교 공부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학교생활이 앞으로 자신이 성장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인식으로 측정되었다. 즉 성취가치가 높은 청소년은 학업을 포함하여 학교생활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성취가치가 낮은 청소년은 학업 및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성취가치는 모든 행동의 내적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며, 학교생활에서의 과업을 원만히 수행할 기초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 과업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48]. 이러한 성취가치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적인 관계로서[48],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유도하여 무단결석 등 지위비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에게 성취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 즉, 학습 유용성의 이해를 시작으로 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유도하고[49], 학교라는 환경에서의 장기적인 학습 유도,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50]. 또한 학교 현장에서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많지만 학습에 기반을 둔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능동적인 자기주도적 성취가치 프로그램의 적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낮은 성취가치로 청소년 지위비행에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취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 적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지위비행의 고위험군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긍정적 양육방식, 성별, 정서문제, 교사관계, 성취가치가 청소년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지위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성별 차별화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공격성에 초점을 두었던 그 동안의 중재에서 더 나아가,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정서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중재가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에게 중요한 학교환경에서 교사관계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바, 청소년 지위비행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교육, 상담기법에 대한 훈련을 통한 교사와의 관계 증진이 청소년 지위비행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데이터를 이

용한 이차자료분석 연구로서, 청소년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한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서 청소년 지위비행과 영향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다.

References

1. J. Y. Byeon, Y. K. Choi, "Emotional Clarity and Response Intensity of Juvenile Delinqu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1, pp. 361-385, (2016).
2.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Youth Health Behavior Survey, Available From: <https://www.kdca.go.kr/yhs/> (accessed Dec., 20, 2020)
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Youth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www.mogef.go.kr/> (accessed Dec., 20, 2020)
4. K. C. Yoo. "A Study of Parental neglect and Delinquent Behavior: on Long-term longitudinal perspective",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20).
5. J. Y. Koo, E. H. Shin, J. H. Lee.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based on Types of Status". *Forum for Youth Culture*, Vol 62, pp. 29-49, (2020). doi: 10.17854/ffyc.2020.04.62.29
6. H. C. Lee, K. S. Kim, S. B. Choi, "The Longitudinal Analysis on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inal Behavior of Korean Youth",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4, No. 2, pp. 125-147, (2016).
7. M. S. Lee, "Different Experiences of the Youth Between the Repetitive Runaway and the Transition Off the Street",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5, No. 2, pp. 87-119, (2013).
8. N. Y. Kim, H. Y. Hwang, "The Effects of Juvenile Delinquency on Adolescents' Levels of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 Propensity Score Analysis",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39, No. 3, pp.31-54, (2018). doi: 10.18612/cnujes.2018.39.3.31
9. M. S. Kim, S. Y. Jun, Y. S. Cho, H. J. Jone,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on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ts with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31, No. 1, pp. 1-9, (2018). doi: 10.15434/kssh.2018.31.1.1
10. T. K. Hyun, "A Study on the Effects of Early Adolescents' Developmental Environment on their Delinquent behavior: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Media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4, pp. 271-283, (2018). doi: 10.15207/JKCS.2018.9.4.271
11. K. R. Choi,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Parental Communication, Academic Problems, and Peer Relationship on Juvenile Delinquenc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8, No. 7, pp. 33-48, (2010).
12. S. Y. Ju, Y. H. Lee, "The Role of Teacher Attach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nt Delinquency,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Resilience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8, pp. 103-142, (2012).
13. J. K. Lee, "A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Teacher Attachment on Delinquency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4, No. 2, pp. 51-73, (2012).
14. W. S. Yun, "The Effect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on Parenting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 22, No. 1, pp. 137-172, (2011).
15. D. W. Lee, J., H. Son., G. H. Kwon, "An Analysis on the Prediction Factor of

- School-Violence: Focused on Data mining Decision Tree Model”,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Vol. 26, No. 2, pp. 95-125, (2016).
16. B. H. Cho, K. H. L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5, No. 4, pp. 729-746, (2003).
 17. S. H. Kim, K. Y. Kim,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Vol. 16, No. 4, pp. 155-166, (1998).
 18. K. I. Kim, J. H. Kim, H. T. Won, “The Standardization Study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in Korea III”. *Mental Health Research*. Vol 2, pp. 278-311, (1984).
 19. Block, J., & Kremen, A. 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349-361. (1996).
 20. S. K. Yoo,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6, No. 4, pp. 189-206, (2002).
 21. I. K. Kong, “Effects of Holland's career exploration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efficacy, career identity and career barriers of underachievers”,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8).
 22. S. Kim, H. J. Baek, The Construction of Korean Youth Happiness Index,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42, No. 6, pp.140-173, (2008).
 23. M. H. Yang,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model”,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24. M. Y. Heo,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2000).
 25. S. W. Kim,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s adjustment”,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26. Armsden, G., Greenberg, M.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No.5, pp. 427-453, (1987).
 27. B. S. Min, “The Effects of School Life Adjustment and Self-Concept on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1991).
 28.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hildren's Comprehensive Survey, 2019. <https://www.prism.go.kr/> (accessed Dec., 27, 2020)
 29.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Child and Youth Human Rights Survey, 2019 <https://www.nypi.re.kr/> (accessed Dec., 22, 2020)
 30. W. H. Lee, W. S. You, “The Analytic Study of Adolescents' Status Offenses : Based on Juvenile Delinquency Theory”,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Vol. 39, pp. 217-239, (2014).
 31. S. H. Ju, “A Study of Adolescent's Academic Helplessness and Delinquenc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1, No. 3, pp. 955-964, (2020). doi: 10.22143/HSS21.11.3.68
 32. D. E.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TSL Family Program for Improving Mental Health and Self-Control of Juvenile Offenders : Focusing on Parent-Child Education for Juveniles in Youth Offending Institute”,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16).
 33. S. G. Lee, “Parents Still Matter: Different Pathways to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 Welfare*, Vol. 24, pp.249-282, (2008).
34. J. K. Yu, Y. S. Han, "Social Bond Predictors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Online and Offline Juvenile Delinquency by Gender -Longitudinal Study Using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6, No. 8, pp. 1-29, (2019). doi: 10.21509/KJYS.2019.08.26.8.1
 35. E. H. Koh, E. J. Kim, "The Effects of Depression, Inattention, Internet Use and Teacher-student/Peer Relationships on Cyber Delinquency in Adolescents: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3, pp. 1-26, (2015).
 36. M. H. Jeung, S. K. Yoo, "Impact of Adolescents' Aggression on Status Delinquency: The Mediating Effect of Cyber-Delinquency and Effects of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61, pp. 1-22, (2018). doi: 10.24300/jkscw.2018.3.61.1
 37. Lee, E. & Lee, E. "Identifying Latent Classes in Adolescents' Cyber-bullying Offensive Conduct and Testing Determinants of the Classe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2, No.2, pp. 111-130, (2015).
 38. K. R. Shin, "Gender difference analysis for status offenses of middle school students: Leisure types, attachments, and negative affection oriented approach", *Journal of Leisure Studies*, Vol. 13, No. 2, pp. 179-205, (2015).
 39. S. Y. Kim, "Latent Profile Analysis and Influential Factors Exploration with regard to Emotional and Behavioral Issue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2020).
 40. S. H. Jang, M. A. Lee,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Focusing on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effects of self-esteem",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7, No. 8, pp. 27-55, (2010).
 41. S. H. Bae, S. E. Yoo, "Development of RPG-based Cognitive Behavioral Group Therapy for Reducing Delinquency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16, No. 3, pp. 471-499, (2019). doi: 10.16983/kjsp.2019.16.3.471
 42. J. S. Cheong, H. Lee, "Relationships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and Delinquent Peers: Comparisons on Gender and Severity of Delinquency",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 Vol. 20, No. 2, pp. 181-210, (2020).
 43. W. K. Kim, "Effects of psychological and ecological factors on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n youth,"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39, pp. 313-345, (2017). doi: 10.20993/jSSW.39.13
 44. K. S. Jo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Teacher Relationship and Youth Life Satisfaction-Based on Ecosystems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2020).
 45. J. A. Son, S. H. Kim,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depression and delinquency : The effect of Parents, Peer and Teacher Fact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8, No. 6, pp. 1-15, (2017). doi: 10.5723/kjcs.2017.38.6.1
 46. G. S. Choi, S. O. Lim, "The Effects of School Adolescents' Personal Relationship on Delinquency: Focusing on Mediator Effect of Game Addi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6, pp. 180-193, (2017). doi: 10.5392/JKCA.2017.17.06.180
 47. Y. J. Choi, S. Y. Lee, "Internalization Problem, Delinquency, and Protective Factor in Poor Adolesc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21, pp. 89-113, (2006).
 48. M. R. Lee, B. H. Park,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xternalizing problems,

- Internalizing problems, Achievement Value,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1, pp. 517-535, (2017). doi: 10.22251/jlcci.2017.17.1.517
49. H. J. Lim, J. C. Kim,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ttainment Value, Self-regulatory Strategies, Achievement, and Academic Adjustment for Middle School Students: A Moderating Effect of Self-resil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6, pp. 161-190, (2014).
50. S. J. Park. H. W. Shim,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al Attitude, Ego-resiliency, Self-regulated Learning Structurally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12, pp. 113-135, (2012).